



“문화·역사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밀려 안타깝지요”

오프셋인쇄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활판인쇄는 역사의 뒤안길로 나갔고 말았다. 이제는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도 힘이 부치지만 그나마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가쁜 숨이나마 쉬고 있는 것은 도서출판 통나무와 같은 출판사가 있기 때문이다. 통나무는 오랜 기간 활판인쇄를 고집해오다가 활자제조 및 조판이 어렵게 돼 이제는 새롭게 발간하는 책은 오프셋인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형이 남아있는 책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활판인쇄를 고수해오고 있다. 활판인쇄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누구보다 아쉬워하고 있는 도서출판 통나무의 남호섭 대표를 만나 활판인쇄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우선 도서출판 통나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회사 설립목적은 노자사상 등 동양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6년 설립되었다. 일반인들은 동양철학이라면 어렵고 딱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고 현실에 맞는 동양철학을 전파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몇몇 분들이 모여 공동 출자해 설립되었다. 본인은 설립 후 사원으로 입사해 지금은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동양철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출판해 동양철학 전파에 일조했다는 긍지를 지니고 있다.

활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만든 우리나라는 인쇄종주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그 금속활자가 기계적으로 자동화돼 대량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활판인쇄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금속활자의 발명이 활판인쇄를 낳게 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 활판인쇄가 오프셋인쇄에 밀린다는 것은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밀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활판인쇄는 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원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금속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활판인쇄가 이제는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활판인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프셋인쇄에 밀려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특히 활판인쇄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활자주조와 문선공이 없어서 조판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남아 있는 지형만을 이용해 재인쇄만 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활판인쇄를 하기 위한 조판의 어려움으로 수지판을 이용해 활판인쇄를 계획 중인 도올 선생의 '노자 길과 얻음'.





활판인쇄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대책은?


 오프셋이 활성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대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활판인쇄가 사라지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면을 위해 서라도 유지·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든지 새로 만든다는 것은 보존·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활판인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봉덕인쇄처럼 활판인쇄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 및 활판인쇄 발주업체에 대해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학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적인 면도 배려하고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판시설은 교육적인 것을 고려해 유지하고 조판의 대안으로서 수지판을 이용해 활판인쇄를 한다면 인력문제 및 경제적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도서출판 통나무에서도 수지판을 이용해 활판인쇄를 할 계획인가?

 현재는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만 활판인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에 출간하는 책은 오프셋인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활판인쇄의 대안으로서 조판을 수지판으로 만들어 인쇄하는 방법을 고안해 도올 김용옥 선생의 '노자 길과 얻음' 이란 책을 절판되는 대로 수지판을 이용해 활판인쇄할 계획이다. 기계는 서있는 채로 박물관에 있다면 기계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활판인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도올 김용옥 선생도 활판인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도올 선생의 출판을 도맡아 하고 있는 본사보다는 도올 선생의 활판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올 선생은 활판인쇄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며 출간할 때마다 책 끝 부분에 '활판 캠페인' 문구를 넣고 계신다. 도올 선생이 야말로 활판인쇄에 대한 애착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분이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활판 캠페인

컴퓨터사식(寫植)이 출판계를 리드하면서 활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과 낡, 지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유구한 전통적 인쇄방법은 사식의 간편성이 따를 수 없는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시각의 입체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활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과 활판으로 인쇄된 책을 귀하게 여깁시다.

요즈음 세상에

活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통나무는

활판의 아름다움을 지킵니다

<윤재호부장>